

[2023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결과발표

‘2023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먼저, 발표가 한달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원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축제예산의 감소와 지원처의 변동으로 최종 축제예산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겨울축제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식초청작 선정 결과

공연명	단체명	대표자명
거인 앙갈로	그림(The Forest)	신창열
나는 거위	창작집단 멀쩡한 소풍	최여림
늪은개	극단 나무	기태인
똑똑똑	극단 북새통	김진희, 남인우
사슴 코딱코의 재판	엠제이플래닛	오준석

※ 공연명 가나다순 정렬

■ 뉴켈린지 선정 결과

공연명	단체명	대표자명
드라클라와 음악선생님	간세쟁이	박연철
합!	공간서커스살롱	서상현

※ 공연명 가나다순 정렬

■ 심사 총평

2023년 아시테지 겨울축제에서 공연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일찍 공모신청을 진행하게 되어 신청 작품 수는 조금 적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어 2022년에도 어린이 공연계에 있어서 새로운 창작의 흐름은 더욱 활발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ACC 창제작 지원프로그램과 아르코의 아동청소년 창작지원 프로그램의 힘을 받아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행히 대면공연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위축되었던 창작의 에너지들이 작품을 통해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아시테지 겨울축제의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변화들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어린이 연극이라는 틀이 확장되어, 무용, 전통연희, 서커스, 음악에서의 어린이 공연들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영유아,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더 섬세한 작품들이 등장하게 된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올해는 총 29개의 작품이 지원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지원서를 작성해준 모든 창작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들은 꼼꼼히 신청서들을 읽고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해가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실연심사가 아닌 점에서 물론 작품의 진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현장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총 5개의 공식참가작품과 2개의 뉴켈린지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축제예산의 감소로 많은 작품을 초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심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들의 작업들이 지속되고 발전되기를 응원합니다.

이번에 신청한 작품과 선정 작품들을 분류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의 성격 혹은 장르	신청작품 수	선정작품 수
연극 (희곡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연극양식)	7	1
인형극 (순수, 그림자, 복합 인형극)	9	2
마임, 서커스, 너버벌 퍼포먼스	1	1
참여형 공연	2	1
뮤지컬, 음악극 (노래가 중심이 되는 드라마)	8	2
전통연희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하는 극적 공연)	1	
무용 (순수 춤 공연, 댄스씨어터)	1	

이중에서 아시테지 협회 회원단체가 20개 작품, 비회원단체가 9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연극과 뮤지컬 등 기존의 연극형식 외의 장르에서의 참여가 적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고정된 장르가 아니라도 장르간 경계를 조금씩 넘나들며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수들이 만난 공연, 발달 장애인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만나려는 시도, 그림자의 정서적 표현이 도드라진 연극과 시각적 완성도에 돋보이는 테이블 오브제 인형극, 관객참여형 뮤지컬, 새로운 개념의 서커스 등의 작품들이 이번 겨울축제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공연들이 이 축제를 통해 소개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시테지의 겨울축제가 단지 공연을 소개하고 관객들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창작자들이 서로 더 교류하고 영감을 나누는 시간들이 중요한 때입니다. 어린이 공연은 배우나, 작가, 연출가들 혼자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함께 작업하는 배우들, 무용수들, 시각작가들, 음악가들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 가운데 창의적 순간들이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낯선 창작자들과의 만남은 창작의 관점을 넓혀주고 즐거움을 가져다줍니다. 아시테지 겨울축제가 이런 만남의 장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예술감독 / 심사위원 배요섭, 조현산, 박지선